

##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 일 개도의 지역특화사업 중심

하태희\* · 형나겸\*\* · 곽경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경상북도의 2019년 65세 이상 인구는 52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하며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 2위이다.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7%를 차지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저 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2019년 28.8명, 2040년에는 80.2명, 노령화 지수는 2019년은 170.8명, 2040년은 484.9명으로 지속적 증가하여 노인 돌봄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자 가구는 2019년 32만 1,523가구에 전체 가구의 29.1%를 차지하며, 이는 계속 증가하여 2040년에는 53.8%가 될 전망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이러한 고령자 가구의 증가는 치매 고위험군인 독거노인의 증가로 이어져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6년 제3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에 따르면 10년 후 노인인구는 54% 증가하나 치매노인은 65% 증가하

여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그리고 2018년부터 신설된 인지 지원 등급자 도입 이후 치매로 인한 요양등급 수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돌봄 시설의 인프라 확충 및 점검이 필요하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그러나 현재 민간 돌봄 서비스 기관 확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시·도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그 역할을 보충할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Kwak, 2019). 또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은 장기적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고(Kim, 2009) 노인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이므로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국 최대 면적인 경상북도는 지리적으로 타 시도와 다른 전달 체계 대응책이 필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국가치매관리사업 후, 각 시도별 지속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따라 일반인 대상의 치매예방교실, 인지저하자 대상의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 대

\* 대구대학교 간호보건학부 조교수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교신저자 E-mail: nakyum.hyung@gmail.com)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교실 교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 Received: 10 March 2020 • Revised: 7 May 2020 • Accepted: 10 July 2020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Hyung, Na Kyum

College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170 Hyeonchung-ro, Nam-gu, Daegu, Korea.. #42515.

Tel: +82-53-650-9493, Fax: +82-53-650-4705, E-mail: nakyum.hyung@gmail.com

상의 치매환자쉼터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운영자는 안심센터 직원 또는 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이고 운영횟수는 주 1회이상 또는 주 5일이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기능 수준에 적합한 워크북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안심센터는 인접 지역에만 서비스가 편중되고 있어 먼 거리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센터 접근성과 이용에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치매관리사업 효과가 취약계층 및 치매관리 사각지대까지 전달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상북도는 이러한 치매관리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2014년부터 현재까지 치매관리 사각지대에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Kwak, 2018).

경상북도 지역특화사업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는 경상북도 25개 시·군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노인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내 350개소(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 10개, 경로당 217개, 마을회관 101개, 치매안심센터 4개, 기타 3개)의 사업지에서 참여 중이다. 사업대상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 대상자가 치매환자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예쁜치매쉼터는 재가 경증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 저하자, 65세 이상 노인 모두가 대상이 되고, 사업장소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시행되며,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 수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른바 복식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1년이다. 운영 인력 중 관리자는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관리사업 담당자이고, 주운영자는 보건지소의 주무관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다. 자원봉사자로 지역단체 및 치매 서포터즈 플러스, 지역주민 등의 자원봉사자 풀도 갖추어져 있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프로그램 강사 등 외부 운영자를 년 4~10회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법으로는 한 회당 10~15명 정도의 소그룹을 구성하여, 주 2회, 80분 이상, 총 50회 이상을 운영하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기본/심화 과정을 각 5개 영역(미술, 감각, 회상, 음악, 운동)으로 나눈 활동과 심성생생 두뇌학교 인지워크북(시각, 지각, 기억력, 지남력 등)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Kwak, 2019). 이러

한 다양한 인지 증재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치매예방 속도 및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므로써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운영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치매예방 프로그램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중심으로 인지요법, 음악요법, 미술요법, 운동요법,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양적 검증 연구(Won, Park, & Kim, 2019; Kang & Chong, 2019; Nam & Sim, 2018; Park, Park, Yun, & Choi, 2015)가 대부분이었고,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만,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방법으로 경로당 이용 노인의 활동적 노년을 위한 연구(Lee, Won, & Jo, 2018)에서 ‘경로당은 생활의 일부’라는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노인의 관점에서 활동적인 노년 생활의 장소는 경로당이고, 이를 통해 경로당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사업이 2014년 이후 7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관리 운영자와 예쁜치매쉼터 참여자간의 프로그램 효과 비교 분석, 예쁜치매쉼터의 우수한 접근성과 치매안심센터 이용 불평등 검증 등 양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치매관리 사각지대인 예쁜치매쉼터의 지속성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 마련과 운영자 관점에서 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심층면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사업의 운영 경험과 현장의 지원 요구를 심도 있게 듣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 운영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경험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에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 셋째,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개선 방안을 무

엇입니까?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특화사업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의 운영 실태, 지원 요구 및 개선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사실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자

먼저, 연구자는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도움을 받아 본 연구주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 대상자 1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이후 1:1 심층면담을 거치는 동안 연구 대상자들이 진술한 내용이 반복되고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8명째 이르러 포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최종 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6명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었고, 2명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이었다. 현재 사업의 운영 실태와 지원 요구를 심도 있게 듣기 위해 주운영자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이 4년 이상 된 자를 선정하였다. 연령은 40대~60대로 모두 여성이었고, 추천 받은 1명의 남성에게 전화 연락 하였으나, 거절 의사를 보여 선정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 3. 자료 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성과 충분성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적절성이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생생하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줄 연구대상자를 알아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성이란, 연구 현상들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orse & Field, 199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 까지 수집하였다.

#### 1) 참여관찰

연구자는 참여 관찰자로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 일정에 맞추어 총 2회 참여하였고, 사전에 연구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참여 관찰을 허락한 G시 A리 마을과 K시 O리 마을에서 진행하였다. 두 곳 모두 예쁜치매쉼터가 운영되는 날 오후 시간에 참여하였고, 시작 전 30분 일찍 도착하여 연구 대상자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었으며, 프로그램에 참석한 마을 노인들과 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시작 시에는 짧은 시간 동안 참여자들과 함께 하였고, 이후 거리를 두고 앉아 그들의 행동, 진행 과정, 관찰을 하면서 느낀 점과 의문점을 참여관찰 일지에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진행하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관찰하면서 심층면담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	Age(s)	Work experience(y)	Position	Work place
A	50s	4y 7m	CHPs*	community health care post
B	40s	4y 9m	CHPs	community health care post
C	50s	5y 6m	CHPs	community health care post
D	40s	4y 1m	CHPs	community health care post
E	50s	5y 3m	CHPs	community health care post
F	40s	4y 0m	CHPs	community health care post
G	50s	5y 5m	section chief	public health sub-centers
H	50s	6y 0m	section chief	public health sub-centers

\*CHPs: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

점들을 알고자 하였다.

2) 심층면담

면담 전, 연구 대상자들과 전화로 면담 날짜 및 시간을 정하였고, 면담 장소는 연구 참여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대상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회의실 또는 응접실에서 진행하였다. 면담 전, 연구 대상자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연구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면

Table 2. Themes and Sub-themes

Themes	Sub-themes	Content
Program operation status	Hard to prepare and operate progra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vertime per day</li> <li>• Program Operating Timeout</li> <li>• Exceeding the burden of work</li> </ul>
	Difficulty adjusting the program lev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ifferences in the intellectual level of participants</li> <li>• Difference in the level of the application program</li> </ul>
	Various needs of program partici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efer high-quality and practical program output</li> <li>• Personal needs in class</li> </ul>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program partici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stracize, ignore, and pinnacle among participants</li> <li>•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people with various characteristics</li> </ul>
Policy support needs	Need for assistant staff and basic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 assistant staff and volunteers</li> <li>• Need to understand business and trained assistants</li> </ul>
	Requirement of extensive training for the main ope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quire more specialized education</li> <li>• Want intensive training for each program</li> </ul>
	Support program aid equi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icrophone required</li> <li>• Bluetooth required</li> </ul>
Project operation's improvement plan	Incentive payment and performance refl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 to reward passion and performance</li> <li>• Additional allowance for additional work</li> <li>• Incentive payment criteria must be developed</li> </ul>
	Improved the operation of doubles c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sitioning and leader selection</li> <li>• Involvement with young volunteers</li> <li>• Direct operator intervention and positive interaction</li> </ul>
	Improved of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main ope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asy access to educational materials</li> <li>• High visual effects on educational materials</li> </ul>
	Improved program activities and workboo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ggestions for using external lecturers</li> <li>• More faithful to the content and composition of the workbook</li> </ul>
Positive effects and changes	Increasing the number of dementia rest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iv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other regions</li> <li>• Having positive effects in other regions</li> </ul>
	Positive effects of specialized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creased intimacy among community residents</li> <li>• Increased personal satisfaction and achievement</li> <li>• Increased cooperation and forming a bond</li> </ul>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dement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dementia</li> <li>• Relieving the fear of dementia</li> <li>• Positive image for dementia</li> </ul>
	Strengthening community awareness through doubles c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virtues of patience, concession and consideration</li> <li>• Cultivation of cooperation</li> <li>• Formation of cooperation</li> </ul>
	Synergy effect on community health care post aware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motional effect of health care post</li> <li>• Changes in residents' awareness of health care post</li> </ul>

답 시간은 60분~9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보다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 대상자 동의하에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고,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의견 중 주요 내용이나 논의 사항 등을 현장 기록지에 간단히 기록하였다. 면담은 연구 대상자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내용이 중복 또는 반복되어 이론적 포화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면담 직후, 3명의 연구자가 함께 면담 내용에 대해 디브리핑(debriefing)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 이후 모호하거나 이해되지 않은 내용은 연구 대상자에게 전화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 4. 자료 분석

녹음된 내용은 면담이 끝난 후 즉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사하고, 의미 있는 진술을 중심으로 분석한 자료와 면담 직후 연구자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 심층면담에서 연구 대상자로부터 유사한 의견이 나오는지 확인 하였으며,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연구자가 질문을 유도하여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도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참여관찰을 통해 수집되고 심층면담을 통해 필사된 자료는 Lincoln과 Guba (1985)가 제시한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필사한 자료를 연구자 각자가 수차례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 중심으로 밑줄을 긋고 명명(labeling)하였으며, 연구자 간의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공통되는 자료별로 카테고리화 한 후 이를 하위주제(sub-themes)와 주제(themes)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타당성 검증을 위해 연구 참여자 2인에게 분석 내용을 보여주어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최종 수정 보완된 내용을 질적 연구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1인에게 최종 확인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 시작 전 K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IRB No. 2019-0059). 먼저, 연

구 참여 전에 전화하여 연구의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자발적 참여 등에 대해 설명하고 구두 동의 받았으며, 심층면담 직전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수집된 면담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고, 녹음 파일과 필사본은 문서 암호를 설정하여 보관하며, 연구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 후 완전히 폐기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심층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 6. 연구 질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소속된 기관 소재지를 경상북도 내 다양한 지역별로 선정하여 여러 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둘째, 심층 면담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참여관찰 그리고 관찰일지와 연구노트 등 다각적(triangulation)인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 셋째,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 3인이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Lincoln과 Guba (1985)의 체계적인 연속 비교법 절차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단일 관점에 의한 분석에 비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 넷째, 분석 결과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연구자가 도출한 분석과 해석을 가지고, 연구 대상자에게 주제의 명명이 적절한지 확인(member check)하는 과정을 거쳤다.
- 다섯째,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개입으로 인해 해석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도록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과정을 거쳐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 7. 연구자 배경

본 연구의 주 저자는 간호대학 정신간호학 교수로 10년 이상 대학병원에서 치매환자를 돌본 경력이 있다. 교신저자는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하고, Y시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력이 있다. 공동연구자는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노인정신의학 및 치매 진료를 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관리를 위한 자문 및 기술지원 등의 중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질적 연구 세미나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 수행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자 성찰 중이다.

###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의 운영 실태와 지원요구 및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4 가지 주제와 16가지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 1. 프로그램 운영 실태

첫 번째 주제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하위주제로는 프로그램 운영 및 준비에 힘이 듭, 프로그램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프로그램 참여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호 이해 능력 부족으로 도출되었다.

##### 1) 프로그램 운영 및 준비에 힘이 듭

연구대상자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주 업무 이외에 예쁜치매쉼터 주운영자를 겸하고 있어 업무량 과다와 업무시간 초과로 힘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 특화 사업인 만큼 다른 시도 보다 일을 더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너무 벅거운 거예요. 우리 동네는 하루 평균 20내지 25명 정도 환자가 오는데 그거 다보고 다른 잡일 다 하면서 치매까지 다시 또 하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 견본 만들고 하는데 드는 시간, 프로그램 당일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시간이 2시간 반이나 걸려요. 일주일에 두 번 이니, 한 주에 여기에 드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A).*

일주일에 프로그램 두 번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하

*기 위해 혼자 연구하는 시간이 또 이틀 들더라고요. 저녁에 오버타임 해가면서 인터넷 서핑하고 어떻게 준비 할까 연구하면서 내가 미리 만들어보고 그래요. (중략) 또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두 시간으로 되어있는데 막상 하면 세 시간 될 때가 많아요(C).*

*경북의 특화사업이잖아요. 그럼 타도는 안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는 일을 더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G).*

##### 2) 프로그램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연구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지능력 수준의 차이로 프로그램 진행 시 한명씩 살펴 봐줘야 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난이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 진도를 맞춰 나가기 위해 먼저 한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 다 할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하였다.

*워크북을 한 두 장 하고 있어요. 엄청 어려워해요. 시골 분들은 무학이 많잖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것 해도 잘 몰라요. 대상자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쉬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맞춰요. 따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F).*

*책을 펴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진도가 같이 나가야해요. 앞에 한 사람도 기다려줘야 되고, 그 할머니들이 할 때까지, 장수가 적게 나가. 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 다하고 난 뒤에 다 했으니까, “할머니 했어요? 다 됐어요?” 확인하고 다음 장 넘어가거든요. 그 장수도 못 찾아서 할머니들이 “어디? 어디고?” 막 그래요(H).*

##### 3)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회기가 진행될수록 질적 수준이 높고 실용적인 결과물을 얻기를 원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주운영자에게 개인적 도움을 필요 이상으로 요청하며, 주운영자에게 본인이 선호하는 영역, 재료, 방식 등을 요구하는 상황을 관찰하였다.

*프로그램 결과물이 무용하거나 저렴한 것은 점점 꺼려하세요. 부채 만들기 할 때 쪽 붙여서 한다고 하긴*

해요. 근데 하고나면 쓰레기만 늘었다며 욕하시죠. 일회성이고 소모성 작품보다는 몇 회에 걸쳐서 단계별로 작품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질적 수준이 높은 작품들을 원하세요(E).

스케치북에 자기 손 본떠서 이 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회상을 했다 말이에요. 큐빅도 붙이고 예쁘게 작업하고서는 아주 예쁘다하고 그냥 덮어 버리고 가요. 이런 쓸데없는 거는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온 사람까지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소장아, 이거 더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안 온 사람까지 다 챙겨주려고 해요(B).

4)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호 이해 능력 부족

프로그램 참여자 서로 간의 배척하고 무시하고 핀잔을 주는 상황이 종종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 프로그램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참여자에게 옆에 있던 다른 참여자가 '이것도 못하냐'하는 말을 수차례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어떤 때는 막 핀잔줘요. 막 뭐라 하고, 막 그 뭐지? 내가 생각할 때는 무안할 정도로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싸우고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가 막 싸워요(A).

여러 사람이 있다면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걸 느껴요. 치매환자는 휴대폰 잘 놔두고 가잖아요. 같이 교육하러 왔다가, "아이고 또 놔두고 갔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치매환자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될 때도 있어요(E).

2. 정책적 지원 요구

두 번째 주제인 정책적 지원 요구에 대한 하위주제는 보조 인력과 이들의 기초 교육 필요, 주운영자 대상 전문화된 심화 교육 필요,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장비 지원, 인센티브 지급 및 성과 반영으로 도출되었다.

1) 보조 인력과 기초 교육의 필요성

연구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자들을 1:1로 봐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원활한 진행 보조를 위해서 참여 전 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 훈련이 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혼자 운영하려면 진짜 머리 어지러워요. 인지 워크북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봐줘야 해요. 그거 하는데 맘이 뻘뻘 나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 밖에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혼자 하니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교육해도 누구 하나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없지, 뭐 보조 아무도 없지, 자원봉사자도 시골 동네에 계신 분들은 거의 80세 이상 무학이에요. 그러면 거기 계신분하고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구하기 힘들어요(C).

중요한 것은 얼마나 훈련된 보조 인력들이 제대로 잘 하느냐가 문제죠. 답을 최척척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찾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보조 인력도 사전에 트레이닝이 되어야 해요(A).

2) 주운영자 대상의 심화 교육 욕구

연구대상자들은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자 집체교육, 관리자 양성교육 등과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여러 교육이 진행 됨에도 불구하고, 치매 경력이 많은 전문가로부터 심도 있는 강의, 세부 영역별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대로 교육받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좀 더 전문화 된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노인들한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해요. 치매 경력이 많은 전문가 강의도 들어봐야 할 것이고 사이버 강의도 강제로 좀 시키던지(A).

교육하실 때 전문적으로 집중교육을 좀 시켜주면 좋겠고, 운동프로그램 중에 포크댄스가 있는데 나는 잘하고 싶은데 포크댄스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CD로 만들어 주신다면 2박 3일 집중교육을 시켜서 인지능력 지도사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웃음)(C).

저희가 받는 교육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다섯 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니 각 영역별로, 음악이면 음악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좀 심어주시면 내가 이론적인 확신이 있으니 일 년 동안 노인들에게 교육하는데 있어 좀 더 똑 부러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D).

### 3)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장비 지원

연구대상자는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장비로 마이크와 프로그램 진행에 흥을 돋구기 위해 블루투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대상자가 때때 큰 소리로 말하고, 자주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에서 지급한 물품이 아닌 운영자 개인의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매주 하고 오면 목이 칼칼하고 아플 때가 있어요. 마이크 같은 거 왜 안주세요? 마이크 필요하다는 사람 많아요. 산만하고 이러면 계속 크게 말해야 해요. 한두 시간 말하고 오면 정말 힘들어요. 목이 다 쉬어요(D).

블루투스 필요해요. 노래를 불러도 음악 틀고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달라요.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하시고. 운동할 때도 음악 약간 곁들여줘야 되요. 그래야 또 신이 나서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동작한 개라도 의해서 집에 가야 텔레비전 보면서라도 운동 하죠(G).

### 4) 인센티브 지급 및 성과 반영

연구대상자들은 예쁜치매쉼터 운영으로 인한 추가 업무에 대한 추가 수당, 운영에 쏟는 노력과 열정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을 강하게 말하였다. 보상이 없다면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것이고, 이는 나아가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더불어 치매쉼터 사업이 업무 성과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센티브와 업무 성과를 평가 받기 위한 평가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플러스 알파의 열정을 요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 열정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형식만 구식만 맞추는 수업이 될 거예요. 지금 주 업무는 10프로도 안되고 치매 업무가 80~90프로라

봐도 되거든요. 진정한 치매쉼터가 돼서 노인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운영자들의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더 나아가다면 보상까지 주면 더 좋겠죠.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F).

근데 치매쉼터 운영을 위해 무거운 가방 들고 간식 사다 나르고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에 하나도 안 넣는 거죠. 성과대회하면 퍼센티지 계산해서 진료소도 분명히 넣어야 하는데. 평가자들도 우리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끔 이분화 되어있는 느낌이 들어요(E).

## 3. 사업 운영의 개선 방안

세 번째 주제인 사업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한 하위 주제는 복식수업 운영 개선, 주운영자용 교육 자료의 개선, 프로그램 활동 내용과 워크북 개선과 예쁜치매쉼터 운영지역 확대에 도출되었다.

### 1) 복식수업 운영 개선

사업 특성상 인지수준이 모두 다른 인지기능 정상인자,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와 중증치매가 모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복식수업으로 연구 대상자는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잘 하는 사람과 가깝게 자리 배치하기, 그룹을 구성하여 리더 선정하기, 보조인력이 치매환자 전담하기 그리고 주운영자의 적극적 중재를 통한 긍정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옆에 초등학교 나와서 글씨 좀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짝을 맺어주면, 짝이 이렇게 써 주고,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또 봐주고 하거든요 저번에 수업할 때는 소그룹으로 상을 세 개 깔았어요. 그래서 똑똑한 할매들 그룹에 하나씩 앉혀놓고 요래 좀 가르쳐줘라 하나까 그 수업에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B).

부녀회장이라던지 거기에서 젊은 할머니라던지, 초등학교 졸업을 좀 하고 인지능력이 좋은 사람을 그 그룹에서 넣어 네 명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까 좀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또 젊은 봉사자 한 분을 종종 치매환자 할머니에게 킵 시키니 수업이 잘 돌아가요(D).



계속 못 따라오면 치매환자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수업에 안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5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지를 해 줘니다(E).

2) 주운영자용 교육 자료의 개선

연구 대상자들은 주운영자 교육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교육 자료를 동영상이나 CD로 제작하거나, 원할 때 언제든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더욱 시각적이고 다채로운 색상으로 만들어진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자고 하였다.

우리 운영자 교육 위해서 CD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웹에 올려서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아니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운영자들이 볼 수 있게끔, 내가 잊어버릴 때마다 바로 볼 수 있게 제작이 되어있으면 좋겠어요(C).

저기 치매 교육을 하면, 이 교육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로 설명 안하고 사진으로 볼 수 있게. 저번에 전체교육 갔을 때 뇌혈관이 되게 미세했었는데, 교육 후에 뇌혈관이 굵고 튼튼하게 되어 흐름이 확 퍼지는 그림, 그리고 치매면 나무에 나뭇잎이 막 날라가는 그림. (중략)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교육 자료를 좀 깔라로 해서 보여주면 더욱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D).

3) 프로그램 활동 내용과 워크북 개선

연구대상자들은 프로그램 활동 영역 중 음악프로그램과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전문 외부강사 추가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워크북의 내용과 구성면에서 더욱 충실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음악이나 운동 프로그램은 저희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런 강사는 음악이나 운동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사를 최대한 많이 허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운동하고, 음악을 분리해서(B).

워크북을 좀 더 충실하게 바꾸어서 참여자들의 지적 능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전문화된 워크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분들은 지적 능력 쓰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50회 수업 중에 한 10회 정도는 워크북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유치원 워크북 보면 워크북 내 뜯거나 잘라서 간단한 걸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F).

4) 예쁜치매쉼터 운영 지역 확대

연구대상자들은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참여자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며 일부 마을에만 운영되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이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하여 지역사회 노인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사업 되게 좋네. 이거 진짜 동네마다 다 하면 좋겠다. 내가 다해줄 순 없고, 그리고 주민들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뭐 지원이나 예산 문제도 있겠죠. (중략) 아예 안 해 본 동네도 처음에는 귀찮아하지만 한번 해보면 또 적극 참여하시고 인식이 달라지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G).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 마을 중에서 겨우 한 마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까...(중략) 몇 개 지역만 선택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쉼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마을 노인들도 활동하고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H).

4. 긍정적 영향과 변화

네 번째 주제인 사업의 긍정적 영향과 변화에 대한 하위주제는 특화 사업의 긍정적 영향, 치매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공동체 의식 강화로 도출되었다.

1) 특화 사업의 긍정적 영향

연구대상자들은 본 사업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자 개인의 인지능력 향상, 만족감과 성취감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친밀감, 유대감, 상호협조

증가로 해당 지역 전체 분위기가 밝고 활성화 되었다고 말하였다.

하고 나니 주민들 자체적으로 인지 기억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주민들 스스로도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어 좋아라 하세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업 되는 것 같고 어르신들 얼굴을 봤을 때 밝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우울도 많이 좋아지신 거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혼자 계시던 어르신, 마을회관에만 나오시던 어르신도 이 교육을 계기로 또 모이고, 또 주민들도 마지막 교육 후에는 “같은 동네 있어도 저 할마이가 저런 능력이 있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간의 친밀감이 증가된 것 같아요(D).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나도 노력을 하면은 치매를 미리 예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이 강조되는 느낌을 받았고 또 좋은 점은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뒤쳐져있던 어르신들도 인지 저하되면 약간 왕따 비슷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상호협조하고, 유대감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마을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다른데 가서 자랑도 하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E).

## 2)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연구대상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향상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 되었다고 말하였다.

가장 좋은 점은 그 지역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갈까 공감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그 치매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잖아요. 어르신들한테 근데 이 예쁜치매쉼터를 하나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좀 해소되고, 긍정적 이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G).

그럴 수 있다. 뭐 잊어버릴 수 있지. 치매 누구나 걸릴 수 있다. 근데 예전엔 치매라 하면 왜 내가 치매야? 치매라고 얘기도 하지 마. 이랬는데 그런 인식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B).

## 3) 복식수업을 통한 공동체 의식 강화

연구대상자들은 복식수업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간 서로 참고 인내하며 양보와 배려로 미덕이 쌓인다고 하였다. 또한 함께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협동심이 길러지고, 상호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고 말하였다.

복식수업에는 인지저하, 치매환자, 건강하신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노인들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가줘야죠. 이렇게 수업하면서 노인들도 서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서로 양보하고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걸 서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과정에서 잘 못 따라 온다고 막 성질내는 노인이 있으면 옆에서 중재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육자의 역할이고, 그러면서 노인들이 배워가는 거지 그걸 구분해서 수업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A).

서로 함께 가기 위한 것이고 치매 걸린 사람들도 일상 속에서 위협하지만 않으면 살 수 있잖아요. 다 위험할까봐 그런 거지. 그 어떻게든 분리하면 안 되죠. 공동체 의식이 서로 좀 있어야해요. 그래서 인지수준 차이가 있도록 그룹을 묶어주면서 서로 같이 가야 협동심이 길러지고 또 같이 갈 수 있게 서로 배려하고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주민들도 이런 걸 통해서 점점 교육이 되어가고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좋아진다고 믿어야 안 되겠냐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점점 많아질 거라 생각해요(C).

## 4) 보건진료소 인식에 대한 시너지 효과

연구대상자는 본 사업을 통해 매주 지역주민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건진료소가 홍보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지역주민 사이에 상호 신뢰감과 친밀감이 형성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하였다.

쉼터는 주민들 만날 수 있고, 그 분들에게 진료소 홍보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사람이 친해져야 진료소도 한 번 더 오는 거고, 진료소에 어떤 약이 있는지 물어보

고 알아야 또 올 수 있는거니까. (중략). 인사이동이 자주되기 때문에, 다른 진료소에 딱 배치가 되면은, 첨에서머서먹한테 치매쉼터를 운영하면서 빨리 친밀감 상호 신뢰감이 형성이 됴으로써 저희들 다른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되요(H).

1:1로 상호유대관계와 신뢰도가 형성된게 보건소공무원과 보건진료소 저희들이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신뢰성이 기본 바탕이 된 상태에서 다양한 운동, 미술, 회상, 감각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대상자를 공감하는 그 바탕 위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는데 다른 보건기관보다 우리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E).

저희가 연중 계속 보잖아요. 그래서 치매 쉼터하면서 계속 대상자를 관리 할 수 있어요 치매쉼터를 함으로써 나도 몰랐던 그 할머니에 대해 개인적인 것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B).

#### IV. 논 의

본 연구는 경상북도 지역특화사업 우리 마을 예쁘치매쉼터의 운영 실태와 지원 요구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예쁘치매쉼터 주운영자는 주 업무 이외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혼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힘이 든다고 하였다. 이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체계에 얽매인 과도한 업무로 인해 업무 수행에 대한 독자적 자율성보다는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소진을 경험한다는 연구(Kim & Kang, 2018), 보건진료소 특성상 혼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문간호를 나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경우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연구(Kim, Lee, & Kim, 2018)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 1인 관리로 인한 어려움과 한계점에 대해 기술한 연구(Han, Cho, Back, Kim, & Choi, 2017),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의 직무스트레스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다는 연구(Kang & Hong, 2018)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주민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역 생

활 터전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아(Kim & Jung, 2012)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삶의 질이 낮다는 연구(Kim et al., 2018)도 본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예쁘치매쉼터 주운영자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 증가, 업무부담 해소, 예산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예쁘치매쉼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상호 이해능력 부족으로 서로 배척하고 무시하고 핀잔을 주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치매가 다른 질환과 달리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뇌신경세포의 광범위한 소실로 인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가 주된 문제라고 한 연구(Morris, Rubin, Morris, & Mandel, 1987)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를 힘들게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문제 행동 증가가 주된 문제라고 한 연구(Jackson, Templeton, & Whyte, 1999)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설명된다. 또한,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는 경로당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텃세와 같은 관계 형성 부족으로 여성 노인의 대상 기피, 우울, 건강악화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한다는 연구(Park & Jeong, 2017)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이해능력 부족의 원인이 단지 병의 진행 과정과 생의학적 요소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적인 요소도 있으므로 주운영자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복식수업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로 제안된 소그룹 형태로 진행하기, 그룹 리더 선정하여 이끌어 주기 등을 비롯하여 Won 등(2019)의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도입 활동으로 서로 간의 스킨십을 통한 위명업 체조나 오늘 수행 활동에 대해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해 상호 이해 능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조 인력과 이들의 기초 교육 함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지역사회 보건진료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과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저조함으로 봉사단체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구축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연구(Son, Moon, Park, & Lee, 2008), 보건소 사업에서 인력 부족으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Han, Lee, & Kim, 2016)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보조 인력이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한 후 참여 할 수 있도록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연구(Kim et al., 2018)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현재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에는 상당한 자원봉사자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보조 인력의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보조 인력 적정 배치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지역 특성상 고령화가 증가된 마을인 경우 지역 내 젊은 보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 점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내용이라 생각되고, 이는 2019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노인쉼터(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프로그램 강화 및 인력 보충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권에 따른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이 가장 큰 변수이므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주운영자들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해 주운영자 대상의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치매관련 전문가 초청 강의, 영역별 세분화된 교육, 2박 3일 집중 교육 등 교육의 양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전담인력의 고혈압, 당뇨병 등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연구(Lee, Yang, & Woo, 2018)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주운영자 교육은 광역치매센터 주최 집체교육(1회/년)과 치매안심센터 주최 맞춤형교육(6회/년)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 횟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일선에서는 도리어 잦은 교육 참여에 대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주운영자 교육에 대한 욕구는 인지 증대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새로운 전문 역량 교육 욕구에 대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주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요자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다섯째, 주운영자는 프로그램 활동 영역 중 음악프로

그램과 운동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외부강사 운영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보건인력들이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역량 함양 부담으로 외부강사 활용을 기대하고 의존하려는 경향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사업 취지 상 인지 증대 이외에 건강증진 전반을 책임지는 보건인력에 대한 기대효과 또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자칫 외부강사 활용 횟수가 증가한다면 보건인력의 새로운 전문영역의 역량 함양이라는 취지에 저해 될 수 있으므로 업무 부담에 과중 해소 수준으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개인별 워크북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고, 다양한 활용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는 워크북이 제작되기를 바랐다. Van de Winckel, Feys, De Weerd와 Dom (2004)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12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중재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와 지속 기간은 중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도 워크북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과가 증가할 것이라 사료된다.

여섯째, 본 사업의 긍정적 영향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인지 능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만족감과 성취감이 증가하며, 활기찬 기분, 밝은 얼굴, 우울 감소, 치매에 대한 두려움 감소, 치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이 있었고, 지역사회 측면에서 지역주민들 간 상호 유대감 형성으로 마을 분위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 요양원에서 실시한 민속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중재 연구(Kim & Jung, 2005)에서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집단 활동과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게임 활동이 섞여 삶에 활력이 되고, 순발력과 협응력을 요구하는 신체 동작들을 배움으로서 인지기능이 향상 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긍정적 결과라고 한 점과 일치한다. 또한, 친구와 이웃과의 대화, 격려, 개인적 관심은 노인의 정체성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공동의 활동과 대화는 친구와 이웃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들의 지지가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oh & Jun, 2018)와도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치매 친화적 공동체 조성 사업인 치매 보듬 마을 사업을 통해서도 치매 환자와 마을 주민 모두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Lee, Kwak, Lee, & Lee, 2019) 결과와도 동일하다. 따라

서, 본 사업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운영 지역을 확대 적용하여 치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 운영의 가장 핵심 요소인 복식수업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간 소통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마음, 서로 도와주는 마음가짐 등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 기능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함으로써 상호 유대감이 증가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2018년 영국에서 시행된 치매 환자와의 잦은 접촉이 치매 인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eston, Hancock, & White, 2019) 결과와 동일한 맥락이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관리 핵심 기관 중 하나인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건강관리 대상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프로그램 운영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건의로 환경의 변화로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일차진료 중심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본 사업을 통해 보건진료소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일 개도의 지역특화사업인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요구 및 개선 방안을 확인하여 향후 본 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의 새로운 모형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기존의 치매관련 인지증재 프로그램 양적연구들에 비해 주운영자 심층면담을 통해 사업의 운영 경험과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치매관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포괄적으로 연계·협력하여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의로 활동을 더욱 가치있게 하고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여

국가치매 관리사업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개도의 지역특화사업 주운영자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편의 표출하였고, 사업 운영 장소가 대부분 경로당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도(都) 전체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다른 지역의 주운영자를 대상으로 반복·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치매관리 운영이 시·도별로 그 규정과 지침이 상이하여 통합된 연구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시·도별 환경적 특성에 따른 운영 방법의 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향후 주운영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중재 연구를 제안하며,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실무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및 실무 측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의식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eston, R., Hancock, J., & White, P. (2019). Dose personal experience of dementia change attitudes? The Bristol and South Gloucestershire survey of dementia attitudes. *Dementia*, 18(7-8), 2596-2608.  
<https://doi.org/10.1177/1471301217752707>
- Han, J. S., Cho, S. Y., Back, H. H., Kim, Y. S., & Choi, Y. M. (2017). Primary health care post dementia management status report for 201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12(2), 45-54.  
<http://doi.org/10.22715/JKARHN.2017.12.2.045>
- Han, Y. R., Lee, B. S., & Kim, B. J. (2016). Public health nurse's perception of their roles & dutie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0(3), 526-543.

- <https://doi.org/10.5932/JKPHN.2016.30.3.526>
- Jackson, G. A., Templeton, G. J., & Whyte, J. (1999). An Overview of behaviour difficulties found in long-term elderly care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14*(6), 426-430.  
[https://doi.org/10.1002/\(SICI\)1099-1166\(199906\)14:6<426::AID-GPS934>3.0.CO;2-D](https://doi.org/10.1002/(SICI)1099-1166(199906)14:6<426::AID-GPS934>3.0.CO;2-D)
- Kang, E. Y., & Chong, B. H. (2019). The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functions and ambulation in elderly individuals at local public health center and local senior citizen community center. *Journal of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13*(2), 47-54.  
<https://doi.org/10.34263/jsotad.2019.13.2.47>
- Kang, Y. S., & Hong, E. Y. (2018). Factors affecting on the job stress among employees of community integrated health promotion program in public health centers: Focus on self efficacy and emotional labor.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1), 19-29.  
<https://doi.org/10.5932/JKPHN.2018.32.1.19>
- Kim, C. M., & Jung, K. J. (2012). Looking back the past 30 year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in rural and remote area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Community Health Nursing, 23*(1), 51-62.  
<https://doi.org/10.12799/jkachn.2012.23.1.51>
- Kim, H. J. (2009).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and daily life activities of elderly in a rural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 Kim, J. H. Lee, J. E., & Kim, G. S. (2018). Factors related to professional quality of life among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7*(2), 109-120.  
<http://dx.doi.org/10.5807/kjohn.2018.27.2.109>
- Kim, J. S., & Jung, J. S. (2005). The effects of a folk play program on cognition, ADL, and problematic behavior in the elderly with dementia.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35*(6), 1153-1162.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153>
- Kim, S. A., & Kang, Y. S. (2018). Influential factors for professionalism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HP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466-476.  
<https://doi.org/10.5762/KAIS.2018.19.1.466>
- Kwak, K. P. (2018). Korean dementia observatory and national responsibility for dementia. *Evidence and Values in Healthcare, 4*(1), 1-9.
- Kwak, K. P. (2019). *Pretty dementia shelter in our village*. Gyeongju: Gyeongsangbuk-do Regional Dementia Center
- Lee, E. J., Kwak, K. P., Lee, K. H., & Lee, K. (2019). Effects of dementia friendly community project on awareness of dementia and changes in attitude. *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23*(2), 80-86.
- Lee, S. Y., Won, Y. S., & Jo, S. W. (2018). A study for active aging of the old-old elderly who uses the senior citizen centers. *Korea Society for Wellness, 13*(1), 111-125.  
<https://doi.org/10.21097/ksw.2018.02.13.1.111>
- Lee, G. A., Yang, S. J., & Woo, E. H. (2018). Past, present, and future of home visiting healthcare services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1), 5-18.  
<https://doi.org/10.5932/JKPHN.2018.32.1.5>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6). *The 3<sup>rd</sup> comprehensive plan of dementia management*. Seoul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London: Chapman and Hall.
- Morris, J. C., Rubin, E. H., Morris, E. J., & Mandel, S. A. (1987). Senile dementia of the Alzheimer's type : An important risk factor for serious falls. *Journal of Gerontology*, *42*(4), 412-417.  
<https://doi.org/10.1093/geronj/42.4.412>
- Nam, J. Y., & Sim, K. L. (2018). A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e music therapy using instruments on cognitive functions, elderly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s who doubted by dementia. *The Journal of Arts and Psychotherapy*, *14*(3), 71-90.  
<https://doi.org/10.32451/KJOAPS.2018.14.3.071>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8). *Health statistics of daegu and gyeongsangbuk-do on health care big data*. Deag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9). *The Statistics of the aged person*. Sejong: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Retrieved February 19, 2020, from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Park, J. S., Park, S. J., Yun, J. Y., & Choi, K. G. (2015). Efficacy of dementia prevention program for cognitive function, depression, and physical function in the elderly non-demented women-focused on senior citizens cente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3), 79-96.  
<https://doi.org/10.14519/jksot.2015.23.3.07>
- Park, S. H., & Jeong, W. C.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old people's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who use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 *43*(1), 255-276.  
<https://doi.org/10.15820/khjss.2017.43.1.011>
- Roh, S. E., & Jun, N. H. (2018).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eisure welfare program for the elderly: Recreation, Therapeutic recreation, play therapy.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26*, 111-134.  
<https://dx.doi.org/10.22589/kaocm.2018.26.111>
- Son, G. S., Moon, J., Park, C. H., & Lee, E. G. (2008). Analysis of the results of health service programs in the primary health care pos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Rural Health Nursing*, *3*(1), 24-33.  
<http://dx.doi.org/10.22715/JKARHN.2008.3.1.024>
- Van de Winckel, A., Feys, H., De Weerd, W., & Dom, R. (2004). Cognitive and behavioral effects of music-based exercises in patents with dementia. *Clinical Rehabilitation*, *18*(3), 253-260.  
<https://doi.org/10.1191/0269215504cr750oa>
- Won, K. A., Park, J. H., & Kim, J. R. (2019). Effects of the cognitive stimulation group program combined with lifestyle education: For the elderly who use dementia care village in rural area. *The Korea Journal of Geriatric Occupational Therapy*, *1*(2), 17-27.

ABSTRACT

## A Case Study on the Appealing Dementia Rest Area in Our Village for Regional Specialization Province in Gyeongsangbuk-do

Ha, Tae Hee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Daegu University)

Hyung, Na Kyum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Kwak, Kyung Phil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iatry,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ongguk University Gyeongju Hospital, Gyeongsangbukdo Provincial Dementia Center)

**Purpose:** This study undertook to qualitatively investigate the operation status, support requirements and improvement plans for establishing an appealing dementia rest area in Gyeongsankbuk-do.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20, 2019, using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of 8 health professionals, and were subjected to qualitative analysis. **Results:** Our analysis revealed 4 themes and encompassing 16sub-themes: 1) program operation status (hard to prepare and operate programs, difficulty adjusting the program level, various needs of program participants, lack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program participants); 2) policy support needs (need for assistants staff and basic education, requirement of extensive training for the main operators, support program aid equipment, incentive payments and performance reflections); 3) project operation's improvement plan (improved the operation of doubles classes, improved of training materials for the main operators, improved program activities and workbooks, Increasing the number of dementia rest areas); 4) positive effects and changes (positive effects of specialized projects, changes in perceptions of dementia, strengthening community awareness through doubles classes, synergy effect on community health care post awareness) **Conclusion:** We believe the current study results can be appli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 new model, and will positively impact the national dementia management project.

**Key words :** Dementia, Interview, Case study, Qualitative research